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탐심 진심이 나타날 때,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아야 하리.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거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족, 소유물, 지위 등에 집착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해하려는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이때 외부적인 대상으로부터 관심을 돌려, 대상을 좋거나 나쁘다고 파악하는 그 마음을 살펴볼려 노력하십시오. 탐욕이나 혐오가 형태, 색깔, 실체 혹은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쩌서 그러도 쉽게 이러한 감정에서 휘둘릴까요?

그것은 당신이 이 감정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나 감정들이 스스로 떠오르고 사라지게 내버려둔다면, 그것들은 그냥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세가 하늘을 날 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듯이 말입니다.

이는 비단 집착이나 분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명상 중 체험에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체험은 수행에 정진한 결과로 오는 것이며, 마음 속에 내재돼 있는 창조성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개처럼 나타나는 것이며, 그러한 체험에 매달리는 것은 무지개를 옷으로 지어 입고 싶은 마음에 무지개를 뒤쫓는 것 처럼 헛된 일입니다. 그저, 생각과 체험이 오가게 놔두시고, 결코 붙잡지 마십시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 자가용 규정 등 현대적 청구 제정 '가시화'

## 조계종 종단쇄신위 9차 회의, 승가 청구 제안 결의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시대에 맞는 현대적이고 보편적인 승가 청구 제정이 가시화됐다.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이하 쇄신위)는 6월 4일 제9차 전체 회의를 열고 '대비원력의 발상과 실천을 위한 승가 청구 제정에 관한 제안서'를 수정 결의했다.

이날 결의된 승가 청구 제정안은 자성과 쇄신결사의 5대 가치로 제시된 수행, 생명, 평화, 나눔, 문화를 범주로 △더불어 함께 행복한 공동체 정신의 회복 △참회와 수행을 통한 자정 △평화로운 사회구현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어떤 행위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성격의 지지제안이 아닌 권하고 격려하는 작지계의 내용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승가의 의식주 문화에 대한 현실적인 청구 조항들이다.

의복에 대해서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옷감을 피하도록 했고, 식생활은 도량 내에서는 전통적 사찰 음식을, 서민 대중과 함께 할 때에는 채식위주의 일반 음식을 먹을 것을 권했다. 개인 소유의 크고 화려한 주거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비싼 숙박시설에

목지 않도록 했다. 스님의 개인 소유 문화에 대한 조항도 기록됐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견덕·계덕은 공용차를, 중덕·정덕은 소형 1000cc 이상을, 대덕·해덕은 중형 2000cc 이상을, 종덕·현덕 이상은 대형 3000cc 이하를 소유할 수 있도록 권했다. 차와 일용품 등도

수행·생명 등 5대 가치 통해

보편적 실천 내용 담아내

금지보다는 격려하도록 유도

종단 첫 전 승려 대상 청구

차·일용품 공정거래 제품으로

고가·호화 문화 생활 제한해

공정 거래, 유기농 제품 등을 사용토록 했으며, 주식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행성 투자를 금할 것을 권했다. 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레포츠 등 호화 문화생활도 지양하도록 했다.

이번 청구에 대해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



조계종 종단 쇄신위원회는 6월 4일 9차 회의를 열고 승가 청구 제정 제안서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본부장 도법 스님은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지만 대승불교이지 못하고, 한국적이지도 않다. 또한 시대에 맞지도 않다"며 "청구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평의하다. 대신 한국불교, 대승불교, 현대불교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강제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원장 밀운 스님은 "청구 내용이 너무 부드럽다. 이번 청구 제정이 백양사 도박 사태에 비롯된 만큼 도박, 음주, 음행 등에 대해 무거운 벌을 줘야 한다"며 "청구 안에는 종단이 바로 설 수 있는 쇄신 방안이 담

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쇄신위는 이 같은 지적 사항들을 받아들여 수정·보완한 후 제안서를 총무원 집행부로 송부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종단 호법제도 개선과 승려복지회 지위 격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승가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의결했다.

한편, 쇄신위 10차 회의는 오는 6월 21일 열리며, 법계지무제도 쇄신안, 중앙총회 의원 선거 쇄신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시 조직인 쇄신위 활동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신종일 기자

##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간성 회복하는 일"

종단협 인권위, 3일 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는 6월 3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영공 스님(전 해인사 주지), 진관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영건 경남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중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연기적 세계관에 있으므로 어느 것 하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차별이란 마치 숨 쉬는 공기와 자신의

생명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믿고 서있는 땅과, 마시는 물과, 일체 생명을 살리는 햇볕이 자신의 존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음과 같다"고 전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은 어떤 이유로도 반대할 수 없는 인간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며, 인간성 회복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인권위는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제정 촉구 운동을 조계종 각 구본사와 종단 별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는 6월 3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경색된 韓日관계 양국불교가 푼다

3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6월 17~20일 공주서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6월 17~20일 충남 공주에서 '전통불교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주제로 제3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에는 협의회장인 자승스님과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일본 정토종 광명사 법주)을 비롯한 120여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009년 여주 신륵사에 건립된 '인류화합공생기원비'에 담긴 과거사 참회 및 인류화합 기원 정신을 계승하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

할 계획이다. 선언문에는 한일 양국간의 학술 분야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식 행사는 18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리는 세계평화기원법회로 시작된다. 오후 2시부터는 '전통불교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측에서는 직지사 주지 흥선스님, 일본측에서는 오자와 겐지 대정대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19일에는 참가자들이 마곡사와 수선사, 동학사, 개태사 등을 참배한다. 김주일 기자

## 태고종 새 총무원장 7월 18일 선거

후보등록은 6월 18일부터 3일간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 선거가 7월 18일 치러진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해일, 이하 선거위)는 5월 21일과 6월 3일 각각 1, 2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선거법 제 7조 '총무원장 선거일은 임기만료 2개월 전(前週)일에 시행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를 7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후보 등록은 6월 18~20일까지 3일간 이뤄진다. 선거위는 5월 21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총무원 직할 교구로 분한신교를 한 승려와 교임 전법사의 분한신교는 인정하되 총무원장 선거인단에서는 배제기로 했다. 김주일 기자

# 社團法人 大韓佛教 統合禪教宗 元老 聖雲堂 青松 大宗師

## 宗團葬 奉行에 대한 感謝의 말씀

귀의삼보하옵고,

본 종단은 지난 6월 2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의 원로이신 성운당 청송 대종사님의 영결식을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원근 각지에서 찾아와 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정부 및 사회 각계 각층 귀빈들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화 및 조전 등으로 조의를 표해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종단은 큰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 뵈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양지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 49재 일정

- ◆ 초재 : 6월 04일 (음력 4월 26일) 화요일
- ◆ 2 재 : 6월 11일 (음력 5월 03일) 화요일
- ◆ 3 재 : 6월 18일 (음력 5월 10일) 화요일
- ◆ 4 재 : 6월 25일 (음력 5월 17일) 화요일
- ◆ 5 재 : 7월 02일 (음력 5월 24일) 화요일
- ◆ 6 재 : 7월 09일 (음력 6월 02일) 화요일
- ◆ 7 재 : 7월 16일 (음력 6월 09일) 화요일
- ◆ 장소 : 울산 중구 태화동 321-1 청송사

※ 문의 : 052)247-7280(청송사) / 041)566-2277 ~ 2278(장의위원회)

중 명 : 법해 도기, 해월 용암

고 문 : 법은, 명중, 법현

장의위원장 : 화엄

장의부위원장 : 동봉, 석각, 삼주, 도광, 해동, 진공, 보월, 지우, 법승

장의 위 원 : 지산, 일성, 지현, 정일, 정원, 자광, 동해, 재성, 보각, 도천, 청호, 완경

집행위원장 : 상원

집행부위원장 : 광은, 법광

집행 위 원 : 지운, 법연, 일운, 자각, 지산, 대성, 평신, 능관, 문상철, 김유광, 광명심, 도현, 연수, 성일, 보현, 동덕, 정일, 법산, 정건,

자각, 도원, 서광, 각원, 도심, 강명, 도정, 보각, 철우, 덕문, 심오, 경오, 수영, 법경, 의해, 미산, 진성, 지공, 보성, 금비,

청정심, 지원, 정행심, 연화심, 도심, 지혜, 일월

은 상 좌 : 보적, 천웅, 법은, 심오 유 발 상 좌 : 청정심

유 발 상 좌 : 유상진, 황규철, 강차완, 송민철, 유분필, 이명자, 김상선, 김선희, 황원준, 서민선, 박경자, 고의택, 신도회장 박선욱, 신도 일동

# 社團法人 大韓佛教 統合禪教宗 宗團葬 葬儀委員會